

제4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속 보 (1)

1995년 2월 27일

1. 참가자중 북한 대표 7명이 불참하게 되었으며, 대만에서 전 '위안부'피해자가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작년 말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함.
2. 현재 참가자
일본 (제일동포 포함) 53명
대만 3명
필리핀 2명 (1명은 피해자 할머니)
한국 150명 참가 예정
북한 불참
3. 2월27일 10시 개회식에서 25분간 문화의식을 가지려고 하니 많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 북한으로 부터는 아직 아무런 소식을 따로 받지 못했음.
북한 불참에 대한 정대협 논평을 2월 26일 11시에 발표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5. 2월 28일 (화)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자들께서 워드를 치시거나, 워드로 전송하실 경우, 1212호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외부에서 연락하실 경우, 744-4872나 745-4872 로 연락하여 교환 1212나 1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 북한과의 연락관계

1월 북한을 포함하여 아시아 각 국에 초청장 발송, 2월4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

2월 8일 북한 중앙방송 통하여 아시아연대회의 참가를 발표, 정대협은 통일원에 신고한 후, 일본단체를 통해 북한에 명단과 인적사항,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청

2월 20일 북한 일본단체 통하여 7명의 명단을 보내음. 단장 홍선옥 (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 최금춘(김일성종합대학 교수)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북한은 이 편지에서 판문점을 통해 내려올것과 신변보장 각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함.

2월 21일 정대협은 판문점 통과와 신변보장 각서를 북한에 보내줄 것을 통일원에 요청함

2월 23일 통일원은 “정대협의 요청에 의해 연락관이 신변보장 각서를 26일 9시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냄. 북한은 적십자사를 통해 전통을 받아감.

2월 25일 일본단체 통해서 북한 발표자를 홍선옥, 최금춘으로 했음을 정대협에 알려음

2월 26일 오전 7시 30분 정대협 영접위원 7인 (윤정옥, 김희원, 김경희, 김신실, 김혜원,윤순녀, 이미경) 판문점행 버스를 탐.

7시 45분 통일원으로 부터 북한 불참을 들음.

* 북한은 중군위안부문제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대책위원회 명의로 25일 성명을 발표했다고함.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6일 오전 7시 20분 발표함. “민간단체 회의에 한국정부가 간섭한 것”이 불참 이유.

2월 26일 오전 10시 정대협은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유감의 논평을 발표 국제회의이므로 일정은 변동없이 진행될 것임.

1995년 2월 27일(월)

속 보 (2)

북한은 2월 26일자로 정대협 공동대표 앞으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선생들께서 마련하신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심정을 담아 우리 대표담아 우리가 준비한 토론문을 귀 회의에 함께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랍니다.”는 말과 함께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안을 왜 반대하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종의 발제문을 보내왔다.

참조 : 발제문 요약 발제문 2종

지하 식당에서 할머니 그림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한글과 그림을 자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1993년 부터 지금까지 강덕경, 김순덕, 이용녀 할머니가 그린 그림 36점이 지하 식당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비매품이며, 앞으로 정대협에서 전시관을 마련하게 될 때, 전시될 것입니다. 그림 지도는 김 경신(金京信, 28세, 인하대 대학원 미술전공)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